

# 亞 최초 'UNCCD총회' 오늘 창원서 개막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장이 설치된 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 각국 참석자들이 속속 입장해 등록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다. /연합뉴스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총회가 경남 창원시 열린다. 지구사막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오는 10일 경남 창원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다.

UNCCD총회는 산림청과 경상남도, UNCCD사무국(소재지 독일 본) 공동 주관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 등 정부대표 1000여명,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간 기구 약 1000여명, 비정부기구(NGO) 및 업체별 국가 대표 1000여명 등 약 3000여명이 참가하고, 관람객 수가 8~10만명에 이르는 메가급 국제행사다.

총회 기간 중 진행될 주요 일정은

황사로 인해 연간 수조원의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받고 있는 피해국 중의 하나인 점이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아시아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해 중국서부지역 조림 8040ha, 중국 내몽고 비안누르시 조림 1000ha, 민간단체를 통한 중국 서북부 산림생태복원 1400ha, 몽골 그린벨트 조림 3000ha, 미얀마 중부건조지역 산림녹화 150ha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사막화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동조치 구축을 위해 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경남이 유치하게 됐다.

경남도는 총회 개최를 통해 동아시아의 공동 이익과 북한,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한발과 사막화를 겪는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한발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국제환경협약이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의제21'을 선언하고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후 체결했다. 현재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고, 한국은 1999년 정식 회원국이 됐다.

## 총회 진두지휘 김두관 경남도지사

### "총회 기대효과 600억 이상 G20개최 이어 국격 높일것"



"이제 사막화방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국제적 핵심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막을 앞두고 "국민들께서는 사막도 없는 우리나라가 왜 이 회의를 개최하는지 의아해 하지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환경 관련 국제회의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 경남에서 열린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며 "지난해 G20 개회 이후 세계가 대한민국을 한층 높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고 여기서 UNCCD총회까지 개최됨으로써 국격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는 심각한 상태로 중국 국토면적의 27%, 몽골 국토면적의 41%가 사막이고 90%는 사막화 영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30일 중국 내몽고와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하루 만에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고 지나가면서 평소 미세먼지 농도의 약 300배에 달하는 최악의 황사를 뿌리면서 우리의 신체적·경제적 추정피해액은 연 4조에서 7조원에 이를 정도"라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번 총회의 기대효과로 "생산유발 545억원, 부가가치 42억원, 고용창출 4600여명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북아시아의 사막화 문제에 대한 지구차원의 공동대응 계기 마련 등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더 크다"고 말했다.

(경남신문=이상목기자)

## 21일까지 193개국 3000여명 참석...관람객 8만여명 동북아 사막화·산림 황폐화 공동 대응방안 등 마련

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 제10차 과학기술위원회, 제10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 개최와 함께 부대행사, 전시회, 현장견학 등이다.

경남도는 UNCCD총회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2009년 10월 개최국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가 UNCCD총회를 유치한 배경은 지금까지 41.3%의 지구표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긴박성과 중국·몽골 등지에서 불어오는

국가의 사막화 및 산림황폐화 문제에 대한 지구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총회 개최를 계기로 사막화·산림황폐화 방지 등 동아시아 여젠대에 대한 리더십 발휘로 OECD국가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 기간에는 전체 위원회의와 과학기술위원회, 협약이행검토위원회, 고위급회의, 국회의원 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 회의체가 다양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부대행사로 대한민국 산림박물관이 13일부터 19일까지 창원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리고, 녹색정부관과 녹색기업 부스 등으로 이뤄진 사막화방지협약 홍보전시관이 마련된다. 지난 7일에는 사막화방지를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했다.

양기정 경남도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철저한 교육과 완벽한 국제회의 준비를 통해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UNCCD총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신문=이상목기자)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UNCCD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열린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전경.

## 창원컨벤션센터, 총회기간 '유엔구역' 지정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총회기간인 10일부터 21일까지 '유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남도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은 9일 "유엔 산하 기구의 회원국들이 회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기간에는 다국적 유엔 경찰 7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검색대를 통해 컨벤션센터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참석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등록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행사장을 출입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인의 회의의 관람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목의 전시장에서 열리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각종 부대 행사에는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다.

입을 통제하는 등 참석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협약에 등록된 신분증을 소지해야만 행사장을 출입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인의 회의의 관람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목의 전시장에서 열리는 사막화방지를 위한 각종 부대 행사에는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다.

**중흥건설** [2011년 제 15회 매일경제 실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www.s-class.co.kr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최고 청약경쟁률 6.14:1

순천·여수·광양의 중심 -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3차

**계약 일정**

**10월 11일(화)~13일(목)**

(계약장소 : 조례동 주택전시관 2층)

**명품 설계**  
대형 실내 스포츠센터, 4-Bay 4-Room (84㎡), 단지내 어린이 버스승강장

**명품 생활**  
신대지구내 18홀 골프장과 중앙공원 명품 거리가 단지내 인접한 중심생활권

**명품 교육**  
전라남도 교육청 신대지구내 메이플림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 승인

**명품 교통**  
목포~광양간 고속도로(2012년 개통예정), 여수~순천간 국도확장(2013년 개통예정)

전라남도 교육청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 승인

단지내 상가분양 (상담접수)

**분양문의 061)727-1000**

총 1,296세대 (84㎡(구33) / 72㎡(구28))

사명: 중흥에스클래스개발(주) / 중흥건설(주)

중도금 무이자

대형 스포츠 센터

4-Bay 4-Room (84㎡)

4-Bay 3-Room (84㎡A, 72㎡)

1,296세대 대단지

\* 단지 내에 대한 실내 스포츠시설

\* 실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